

수 요 인 터 뷰

“남을 인정할 때 사회병 치료돼”

—보살도 실천의 방편인지 모르나만 태고종은 얼마전에 성수대교 참사자를 위한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천후국재를 봉행하였고, 지난 9월에도 전통불교문화 계승을 위한 8관대재를 재현하는 등 사회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이에 대해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위기, 화합절실

▲종교의 생명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부르기 전에 앞서갈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상하게 근년들어 우리나라에 재난이 많습니.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할까요. 아무튼 불안하고 흉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정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전투적이고 악랄한 국민정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8관대재와 천후국재란 행사를 통해 국민정서 순화운동에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승려들이나 불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이지요. 혼란은 곧 서구문명의 자나천 광배 혹은 그에 대한 맹종이 원인이라 봅니다만 이유는 여하튼 치료가 급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은 국민정서를 순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태고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앞으로의 종단발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태고종의 승려들은 정화의 분규로 조계종에서 쫓겨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조계종과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태고종을 창종한 1세대들은 몇몇 분 외에 모두 열반했고, 지금은 2세 내지 3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젊고 패기가 있으며 추진력이 강합니다만 창종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증심이나 응집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단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종단발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덧붙여 태고종과 조계종의 분규는 현상태에

종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휴재산을 활용하고 장학후원회도 조직하려 합니다. 동방불교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자 전원을 선암사로 보낼 예정입니다. 선암사에 4년과정의 전통강원과 선원을 세워 현대교육과 전통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

선교를 겸수하되 증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법과 이념을 실천하는 교종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한국불교의 전통이 동불교라는 점에서 종파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보살도의 완성이 중요하겠지요. 이를 위해 인적·물적·제도적·교육적 방법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심

—금년 세남(나이)이 78세이신데 출가하신 시기와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요.

▲국민학교를 3월에 졸업하고, 그해 6월에 입산했습니다. 벌써 65년 되었나 봅니다. 출가 동기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당시 저의 부친께서 용인 극락사의 승려였어요. 어린 저를 그때 용주사 주지였던 강대련스님 문하에 입적시켰는데 당시의 길을 따라

서 봉 스 님

〈태고종 총무원장〉

대답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각종재난 메마른 국민정서 탓 종단초월 전법해야 불교중흥

서 멈추고 양 종단이 모두 전법교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파보다 보살도 실현을

—불교의 미래는 인재교육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단차원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4년제 각

지로,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어가 필수이므로 영어를 비롯 2~3개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시설도 완벽하게 설치하려 합니다.

—태고종의 종지나 종풍은 무엇이며, 그것을 현대화, 대중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고종의 역사를 살펴보면 태고보우스님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선종이라 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오라는 뜻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출가 이후 지금까지 한은 팔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며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행하신 장소와 수행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사는 선교겸수를 종풍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래도 교리 쪽이 약간 우세했지요. 출가한 후 용주사 강원에서 사미·사집·사교·대교(화엄연담)까지 공부했어요. 그 중간에 잠시 금강산 장안사



에서 법패를 배웠지요. 용주사 강원을 마치고는 절원에 있는 심원사 강원에서 화엄경 삼현(三玄)을 공부했습니다. 도반으로 우리 종단의 종장이셨던 안덕암스님, 현 조계종 종장이신 윤필하스님이 계셨습니다. 이후 43년도에 해회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비구·대치의 분규가 있기 전까지 용주사에서 3직을 맡아 보았습니다. 그후 일본 소재의 금강사 주지를 2년여 맡은 것 이외에는 태고종 중흥을 위한 현장에 있었지요. 85년부터 현재까지 신촌 봉원사 조실로 있으며, 부처님께 바치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태고종 발전을 위해 행정수반을 맡고 있습니

다. 해방 이후 국내의 정세가 어려웠던 만큼 불교 내부도 매우 다사다난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굳은 신심으로 흔들림없이 오늘날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그리고 불자들은 늘 결론하고 남을 생각하며 종생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회향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대한 발심은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삶은 가꾸기에 따라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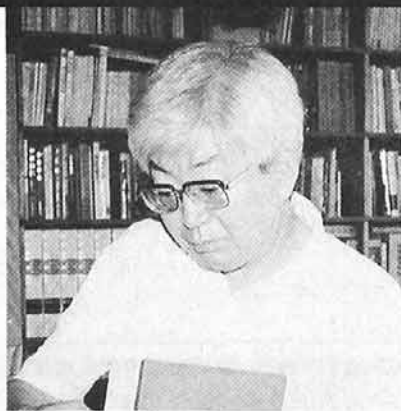
고은

「내가 가는 금강경」

깨달음으로 가는 선의 향기

“금강경 이해를 위한 문자행위들이 도리어 금강경의 본문을 다 죽여 버린 것은 아니냐. 이런 격렬한 질문과 함께 나는 금강경의 세계에 들어간다.” (본문 중에서)

신국판 / 352쪽 / 값 5,500원



공종원

「이 땅의 불교사」

통렬한 불교개혁의 외침

개혁시대의 한국 불교 격려와 질책 속에 슬기롭게 진행되는 개혁의 대장정. 이 시대 우리 불교를 걱정하는 불자들이 참된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큰 울림을 준다.

신국판 / 400쪽 / 값 5,500원



김정빈

「깨달음의 향기」

아름다운 부처님의 발자취

이상은 우리의 별이다. 그것은 아무런 먼 곳에 있을지라도 못내 사랑하고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가장 완벽하게 현실을 이상화하신 분이시다. 각수심 예민한 작가의 눈으로 본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신국판 / 352쪽 / 값 5,000원



정병조

「정병조 불교입문」

불교입문의 정통 개론서

부처님 사상의 모태인 인도의 자연과 종교에서부터 부처님의 출현과 생애, 가르침 그리고 교단형성과 경전해설까지. 인기 교수인 저자가 체계적으로 불교세계를 안내한다.

신국판 / 340쪽 / 값 5,500원



강건기

「불교와의 만남」

맑고 넉넉한 삶을 위하여

불교방송(BBS) 교리강좌를 통해 1백일 간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강간기 교수의 불교이야기. 필자의 신앙과 수행경험을 토대로 이상적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국판 / 496쪽 / 값 6,500원

여기, 제대로 된 불교책 있습니다!

불교공부하기 좋은 책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불법의 진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불법을 알았어도 그것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 동안 불교를 안내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제 여기 이 책들을 만나보십시오. 아주 쉽게, 자상하게, 감동적으로 써여졌습니다. 이 책들은 불교를 이해하여 삶을 지혜로 살려내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불지사 | 서울시 중구 경흥동2가 189-6 뉴장충빌딩 2층
TEL : 277-2676 (대) FAX : 278-9118